가을철 진드기·설치류 주의보

전남 발병률 전국서 가장 높아
올 9월까지 쯔쯔가무시증 환자
광주 19명·전남 250명 발생
태풍 복구작업 수칙 준수 당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에 가을철 열성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발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잇따른 태풍 피해로 야외 복구작업 등이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1일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나 농업활동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등을 통한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태풍 피해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90%,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환자의 60%가 가을철에 발병함에 따라 야외 활동시 주의해야 한다.

올 들어 9월 기준 광주는 19명, 전남은 250명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한다. 이 균에 감염되면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발열·오한·구토·발진·근육통·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딱지(가피)가 생긴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한 만큼 증상 발생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밭 위에서는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

전남에 불어닥친 세 번의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에 한창인 전남농가에서는 렙토스피라증에 주의해야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태풍과 동반된 비로 인해 설치류 서식지 등에 환경변화가 생겨 하천에 렙토스피라균이 유입,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렙토스피라증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최대 30%에 달해 질병관리본부는 벼 세우기, 추수 등의 작업을 하는 농민에게 보호복·장화·마스크 등 착용을 당부했다. 올해에는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07명이 감염됐으며 광주 2명, 전남 10명으로 집계됐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흔히 유행성 출혈열로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 주로 늦가을에 국내에서 유행하는 풍토 발열질환이다. 이 질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소변·분변 등이 건조돼 먼지와 함께 공기 중에 떠다니다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에 감염되면 발열·출혈소견·신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의식 저하나 경련이 발생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된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군인, 농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0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광주 3명, 전남 46명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란 코스모스 가득한 광주천 21일 오후 노란 코스모스로 뒤덮인 광주시 서구 유촌동 광주천변 산책길을 시민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대응…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곳 경유차 집중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어린이 독감 주의 "유치원·초등학생 예방접종 하세요"

11월 3일까지 '집중 접종주간'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11월 3일까지 2주간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치원·초등학생은 집단생활로 독감 발생과 유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접종률을 높여 발병 예방효과와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접종주간에는 '나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미리 예방하세요' 캠페인도 진행된다.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을 잘 지키자는 것이다. 또 감염병이 의심되면 진료를 받고 다 나을 때까지 등교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질본은 캠페인 기간 미접종자 접종 독려와 10~12세 초등학교 고학년 52만명을 대상으로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집중 접종주간에 학부모, 학생 등에게 11월 전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한다.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방접종 예진표'를 어린이가 지참한 경우 보호자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

무등산 첫 단풍…지난해보다 3일 늦어

9월 기온 평년보다 1.8도 높아

올해 무등산 국립공원의 첫 단풍이 21일 관측됐다. 순천의 조계산도 이날 첫 단풍이 확인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해발 1187m 무등산 정상에서 첫 단풍이 21일 관측됐고, 이는 지난해(10월 18일)보다 3일, 평년(10월 20일)보다 1일 느리다"고 21일 밝혔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단풍 절정은 80%정도 물들었을 때다.

지난해 무등산 단풍의 절정기는 10월 30일이었고 평년은 11월 3일 이다. 단풍은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작하는데, 특히 9월 이후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무등산의 단풍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느린 이유는 광주지역 9월 평균최저기온이 19.6도로 평년(17.8도)보다 1.8도 높았으며, 10월 20일까지 평균최저기온도 14.1도로 평년(12.1도)보다 2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의 유명산 단풍 관측지점은 무등산(광주), 조계산(순천), 월출산(영암), 두륜산(해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44 / 해짐 17:50 / 달뜸 --:-- / 달짐 14:13

아침 안개 '운전 조심'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12/23	보 성	구름많음	9/22
목 포	구름많음	13/22	순 천	구름많음	12/24
여 수	구름많음	16/22	영 광	구름많음	10/22
나 주	구름많음	9/23	진 도	구름많음	11/22
완 도	구름많음	14/22	전 주	구름많음	11/23
구 례	구름많음	9/24	군 산	구름많음	12/23
강 진	구름많음	10/24	남 원	구름많음	10/23
해 남	구름많음	9/23	흑산도	구름많음	16/21
장 성	구름많음	9/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51	07:38
	12:55	20:41
여수	08:47	02:25
	22:38	15:5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14/21	13/24	14/23	12/19	9/18	9/19	9/17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65세 이상 노인 비율 상승
병원·시장주변 사고 잦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18년 56.6%로 꾸준히 상승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1910명에서 2018년 1487명으로 22.1% 줄었지만, 노인 보행 중 사망자는 같은 기간 919명에서 842명으로 8.4% 감소하는데 그쳤다.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장소는 병원과 시장 주변이었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반경 200m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발생한 529곳의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주변이 65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교 석면 해체 기준 위반
3년간 광주 10건·전남 8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지역 학교의 석면해체작업 중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18건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석면해체 기준 위반사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학교 석면해체 기준 위반건이 광주 10건, 전남 8건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는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될 경우 극히 위험하다.

이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작업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의 1만 5000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가 석면해체작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리뉴얼된 객실과 도심 속 휴양시설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세요

호텔과 레져, 온천 사우나가 한 곳에

· 무등산을 품은 자연 환경
· 가족 모두를 위한 부대시설
· 10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
· 도심 속 양질의 온천수 사우나
· 각종 행사를 위한 다양한 연회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문의 062-226-0011 www.hotelmudeungpark.co.kr